문화특집 광주민중항쟁의 소설화 발전단계

문학에 형상의 의미 부여하는 상처

두려움과 죄의식 속에서 '빛'을 찾는 작가들

윤정모·임철우 죄의식, 홍희담 계급의식 깔아

Ⅰ. 광주민중항쟁의 현재성

한국현대사 중에서 어둠과, 그 어둠에서 생기는 공포, 그 공포가 개인에게 두려움과 원죄로 치환되는 역사적 사실을 말하라면, 누구나 광주민중항쟁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다.

왜냐하면, 광주민중항쟁은 한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외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민중항쟁은 현재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 문학에 형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Ⅱ. 소설에 나타난 광주항쟁

그러나 광주민중항쟁을 소설 속에 형상화한다고 할 때, 그 첫단추마저 안 끼어지는 느낌이 든다. 광주를 소재로 소설을 쓰는 작가의 충격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두려움과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이다.

한국현대사에서 가장 거대한 폭력인 이 광주민중항쟁을 소재로 형상화한 대표적인 소설은 임철우의 '봄날'과 '수의', 문순태의 '일어서는 땅', 윤정모의 '밤길', 홍희담의 '깃발', 김중태의 '모닝', 김유택의 '망명의 골', 박호재의 '다시 그 거리에 서면', 정도상의 '섬으로 가는 이야기', 한승원의 '당신들의 본도가 네', 이영옥의 '달으로 가는 헬리콥터', 정현웅의 '소설 광주정문화'등이다. 이 중에서 그래도 두려움과 죄의식이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작가는 윤정모, 임철우, 홍희담 정도이다. 이 글에서는 광주민중항쟁을 소설화하기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위의 세 사람의 소설을 중심으로 광주민중항쟁이란 소재를 과악하는 인식의 변모를 추적해 가기로 한다.

윤정모의 경우:단편 '밤길'에서 '밤길'이라는 상징이 나타내는 것은 속죄와 구원의 길이다. '김신부'와 '요섬'의 야행을 '로마군(진압군)'의 잔인한 행위를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고, 봉제된 방송에서 떠들어대듯 불순분자나 폭도로서의 시민이 아니라는 누명을 벗기기 위한 것이다. 이 밤길의 시간적 배경이 항쟁의 마지막 날 새벽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 다른 동지들은 작전명 '화려한 축제'에 의해 죽어가는 상황에서 '김신부'와 '요섬'은 이 사실을 알리려 광주를 벗어나 서울로 가는 임무를 띤 것이다.

여기에는 '요섬'이 '김신부'에게 말하듯이 "그들은 죽었어요. 모두가… 그런데 난 미겁자가 되었잖아요. 죽보에도 없는 비겁자…"의 상황이 설정되어 있다. 이 상황설정의 의미는 '요섬'이라는 개인으로 대표되는 우리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죄의식을 가리킨다.

이 죄의식은 현실에서는 시대에 느껴지만, 소설 속에서는 종교와 민결해 있다. 진압군을 '로마군', '가나안', '출애굽'이라 표현한 것이 모두 그러한 연유인 듯하다. 이 죄의식은 필연적으로 속죄를 필요로 한다. 이 속죄가 소설 공간에서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어서 일어나거라. 너의 임무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김신부의 전언은 바로 그것이다. 또한 김신부의 내적 독백인 "우리는 지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있는 게 아니란다. 거기에도 장벽이 있다"란 말에서도 찾을 수 있다.

현실의 '장벽'이란 말에서 이 밤길의 장벽은 '김신부'와 '요섬'만이 아니라 80년대를 걸어온 개인 모두의 장벽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장벽'을 깨뜨려 나가는 '임무'가 독자들에게 암시된다. 즉 장벽을 깨뜨리는 것은 속죄의자 궁극적인 구원이다. 이로써 밤길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 된다. 작자는 여기서 이 구원의 길, 즉 밤길의 끝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그것은 광주민중항쟁의 본질적인 물음에 관계한다.

임철우의 경우:그의 단편인 '봄날'과 연작인 '수의'는 한 개인이 광주민중항쟁이라는 역사적 폭력을 견디어내는 내면과 정을 그렸다. 봄날에서 주인공 '상주'는 도청에서 죽은 '명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이 죽인 것 같은 죄의식을 갖게 되며 신경증에 시달리다가 정신병원에 입원한다. 이때 정신병원은 광주민중항쟁이라는 폭력을 자기 내면에서 진지하게 싸우려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죄의식과 두려움과 무끄러움'을 가두어 두는 곳이다.

상희나 병기나 순임이나 나는 모두 역사의 폭력을 일상화한 사람들이다. 일상화된 사람들은 '상기'를 죄책감과 자학과 자책으로 시달린다고 본다. 이런 일상적인 인간들에게 '상기'는 일종의 그들의 내면이다. 일상적인 인간들이 숨겨놓은 무의식이다. '상기'는 일상적인 인간들에게 "너라면 여전히 예전처럼 꿈을 꿀 수가 있나"라고 반문한다. 또한 그는 거울 속의 '너'를 보며 자학한다. 이 정신병의 사슬이 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봄날2라고 부제를 붙인 '수의'에서는 정신병(역사적 폭력의 상처)이라는 사슬이 풀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살아 있는 자나 죽은 자거나, 혹은 정신병자나 일상인이나 모두 수의를 입고 있는 현실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사인 작가가 취한 치료방법은 정공법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명부'가 투쟁할 때 숨어지낸 자신의 두려움과 그 부끄러움을 정면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 폭력 앞에 다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깨닫는 것이다. 죽음이라는 상황에서 한 개인에게는 비겁했는지 모르지만, 그 누구이든 '패배자'라고 부르기엔 이른 것을 깨닫는 일이다. 패배자라는 마지막 관결이 아니라 '싸움은 언제나 다시 시작된다'란 것의 인식이다. 즉, 새로운 삶의 출발을 예견케 한다.

홍희담의 경우:그의 소설 '깃발'은 '87년 민중운동의 상승무드를 타고 쓰여졌다. 그래서 소설 '깃발'에는 한 노동자가 '광주민중항쟁'에서 어렵게 노동자 계급의식을 나타내고 실현하는 가를 보여준다.

작가의 등장인물설정 태도에 있어서도, 아학교사이자 대학생인 '윤강일'을 제외하면, 모두가 노동자들이다. 노동자가 아니면 죄어도 농민이나 민중이다. 또한 이런 확연한 구분은 지식인 계급과 노동자계급 사이의 대결양상을 설정한다. 무기반납을 결정하는 대책위원회가 온건파(학생과 지식인)와 강경파(민중)의 대립에서 강경파의 득세로 되는 모습이나, 사망자의 계급분석에서도 유산계급은 34명이고 무산계급은 8백22명의 모습에서이다. 순분과 영순과 철순과 윤강일과의 대화에서도 "죽음조차 윤선생님쪽의 사람만 부상하는군요"하는 식의 비꼬음 역시 그러하다.(또한 형자는 대학생들과의 어설픈 노학연대를 반대한다.)

이런 계급의 분별은 일종의 도식화를 유발한다. 지식인 계급의 기회주의적인 속성과 노동계급의 투쟁인식과정이 그러하다. 지식인 계급으로 대표되는 윤강일의 도피 대신 노동자 계급으로 대표되는 순분, 현자 등은 죽음을 각오하며 도청을 사수한다.

도식적인 것은 곳곳에서도 나타난다. 순차적인 시간구성에 맞추어 증거있는 사실들을 이어놓은 것이며, 또한 한 개인의 성격묘사나 심리묘사가 극도로 자제되어 있는 것 등이 그것이다. 오직 '노동자'란 일반적인 인물이 나올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깃발'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광주민중항쟁의 패배주의를 극복하려는 양상을 노동자(민중)의 시각에서 그렸기 때문이다.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지닌 학생운동과의 관계를 이탈하여 노동자 스스로 연대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지식인과 학생을 비판한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 가는가를…'그것은 곧 너희들의 힘'이란 것을 안다. 그래서 순분은 스스로 노동자라는 게 자랑스럽고, 노동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깃발'임을 연상한다. 깃발은 단결의 상징이자 승리의 상징이다.

Ⅲ. 결

지금까지 광주민중항쟁 소설화에 어느 정도 성공한 작가의 소설을 대략 살펴보았다. 윤정모는 밤길이라는 속죄와 구원의 측면에서, 임철우의 경우는 역사적 폭력을 한 개인의 내면에서 견디는 측면에서, 홍희담의 경우는 한 노동자가 광주민중항쟁을 통해 노동자계급의식을 발현시키는 측면에서 소재화했다. 또한 윤정모와 임철우는 죄의식을 깔고 있음을, 홍희담의 경우는 계급의식을 바탕하고 있음을 앞에서 확인하였다.

이러한 작업들이 궁극적으로 한국현대사가 지니는 어둠과 그 어둠의 공포 속에서 빛을 찾는 작업의 연장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앞으로 광주민중항쟁의 올바른 소설화를 위해서라면, 민주를 원원하는 민중의 힘의 표현이라는 광주민중항쟁의 혁신에 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문화부〉

5·18 현장사진

"오! 어머니 당신의 눈물"

윤해도 5월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문민정부가 들어섰음에도 광주민중항쟁의 진상규명은 요원한 것처럼만 보이고 현직 총리의 '12·12 합법' 발언으로 정국은 시끄럽다. 역사의 평가에 맡긴다는 그럴듯한 말은 현정권의 역사의식을 가늠케 한다. 태극기에 덮인 열사들의 넋은 실정법에 의해서는 위로될 수 없는 것일까?

□광주순례기…망월동 묘역 참배를 다녀와서

역사의 증언대로 부활할 망월동

진상규명만이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어

해마다 이맘때면 추적추적 하늘이 울었다.

2년째 망월동 묘역 참배를 왔지만 달라진 것은 거의 없었다. 축축히 옷을 적시는 비, 구슬픈 노랫소리, 초라한 무덤, 땅 속에 묻혀 밟히고 있는 전두환이 새웠다는 방문기념비….

몇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새로이 자리를 잡은 많은 노동열사들의 무덤이 눈에 띄었다.

전체적으로 묵념을 한 뒤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열사들을 만나기 시작하였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곱게 웨딩드레스를 차려입고, 수줍은 듯이 웃고 있는 故최미애씨. 임신 8개월에 학교에 간 남편을 마중나오다 계엄군의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한다. 최미애씨의 남편은 그녀의 묘비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여보, 당신은 천사였소. 이 다음에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저수지에서 떡을 감고 있던 중학교 1학년 까까머리가 죽고, 급히 피해 달아나면서 벗겨진 고무신 찾으러 가던 국민학교 4학년짜리가 죽고, 헌혈하고 나오다 여고3학년의 여학생이 총에 맞아 죽고……. 과연 이들이 폭도였던가?

더욱 마음이 아팠던 것은 13개의 무명열사들의 묘였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서 아직도 이름없이 떠도는 것이다. 또한 행방불명으로 어딘가에 암매장돼 있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사진들…….

그 외에 이한열, 조성만, 이철규, 강경대, 박승희 열사들의 무덤으로 어느새 광주 망월동은 이 나라 민중들이 잔악한 군사독재정권에 용감히 싸워온 귀중한 역사의 증언대가 되고 있었다.

참배를 마치고 차에 오르려는데 30대 초반의 한 아주머니께서 당시 광주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80년 여고생이었을 때 계엄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 오빠의 모습을 13년이 지난 지금도 설움에 목이 잠기면서 설명해 주셨다. 그 아주머니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였다. '광주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하여 역사 속에서 오빠의 죽음이 정당하게 평가받기를 원하고 계셨다.

이를 위한 노력도 없이 역대 대통령들이 감히 오지 못했던 광주를 똑같은 세력을 등에 업고 대통령 자리에 오른 김영삼 대통령이 방문한다 했을때 광주는 이를 막았던 것이다.

진정한 문민정부라면 13년동안의 광주의 설움, 아니 이 나라의 자주, 민주, 통일을 열망하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이들의 설움을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어제(10일) 조선대에서 이철규열사 살해진상규명을 요구하던 학생들에게 직격탄을 쏘아 40여명이 부상당하고 실명위기까지 놓여 있다고 한다. 어디까지 문민정부요, 민주정부인가?

올해안에 광주문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질 때만이 비로소 망월동의 비는 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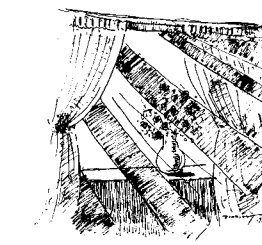
김 수 진(영교·4)

□금주의 시

봄 날 엔

배 정 원 (국문·4)

어머니, 저 창문 좀 닫아주세요
이렇게 눈부신 햇빛은 제발 꺼주세요
봄이잖아요 탄불도 꺼졌잖아요
선잠 속에선 꽃밤이 기어나와
어지러워 잠이 깨도
차마 눈 뜰 수 없는 봄날이잖아요



환절기처럼 불안한 마음의 틀엔
어떤 씨앗도 發芽하지 못할겁니다.
간혹, 酌婦의 눈물같은 봄비도 흩뿌리고
뒷산엔 아지랑이 흐물흐물 피어오를 테지만

어머니, 더 두꺼운 커텐을 쳐주세요
어설픈 희망이 나를 조롱하고 있어요